



# 재외동포 자녀들의 이중언어능력과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

1차시: 재외동포 자녀들의 이중언어능력에 대한 이해





# 학습목표

## 01 단일언어주의 언어관 분석, 성찰

- 💡 이중언어능력 평가에 준거가 되는 단일언어주의 언어관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다.

## 02 이중언어능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

- 💡 재외동포 자녀들의 이중언어능력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.

## 03 언어교육 목표 정립

- 💡 재외동포 자녀들을 위한 언어교육의 목표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.



# 01

---

##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본 다양한 이중언어능력



## 다양한 이주자 이중언어 사례

- 강은 (초1 이주): 한국어는 어린아이 말 같고 영어가 편하지만 격식어 사용과 대학에서의 글쓰기가 어렵다.
- 다은 (중2 이주): 귀국 후, 한국 학술어 및 한자어를 이해 못하고 한국인들과의 대화에서 문화적 의미 파악을 못한다는 걸 알게 됐다.



## ❁ 다양한 이주자 이중언어 사례

- 현우 (초6 이주): 영어와 한국어, 둘 다 편하지 않고 두 언어에서 모두 격식어 사용의 어려움을 느낀다.
- 찬민 (중3 이주): 구어 영역은 한국어가 편하고 문어 영역은 쉬운 건 한국어, 어려운 건 영어가 낫다.

- **영역별 · 상황별 다양하고 복잡한 이중언어능력**



**02**

---

## 이중언어능력에 대한 해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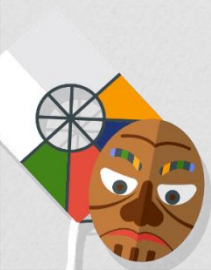


### 영역과 상황별 수행과 더불어 익힌 언어에 능숙

#### 연구자들의 제안과 일치

(Baker, 2011; Cook, 1992, 2002, Garcia 2009, Grosjean, 1985, 2008, Jessner, 2008)

- 두 언어를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구사하는 능력은 실재하지 않음
- 사실상 거의 모든 이중언어구사자는 상황과 필요, 대화 상대에 따라 두 개 언어를 선별적으로 구사함



## 영역과 상황별 수행과 더불어 익힌 언어에 능숙

### 연구자들의 제안과 일치

(Baker, 2011; Cook, 1992, 2002, Garcia 2009, Grosjean, 1985, 2008, Jessner, 2008)

- 이중언어구사자들은 단일언어사용자와는 다른 독특하고 특수한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
- 이중언어 사용자를 단일언어사용자와 비교하는 것은 단거리 주자와 높이뛰기 선수, 그리고 장애물 경주 선수를 비교하는 것과 같음





### 영역과 상황별 수행과 더불어 익힌 언어에 능숙

#### 연구자들의 제안과 일치

(Baker, 2011; Cook, 1992, 2002, Garcia 2009, Grosjean, 1985, 2008, Jessner, 2008)

- 이중언어자들끼리 비교해야 함



### 연구 참여자들의 평가

- 상민이의 인터뷰 중,

“한국말도 완벽하지 않고 호주말도 완벽하지 않고...”

“어중간하죠... 한국말도 한국에서 온 사람처럼  
잘하지 못하고, 영어도 여기서 태어난 사람처럼  
잘하지도 못하는 그런 거...”



# 03

---

## 인터뷰에 나타난 언어에 대한 일반적 인식



### ❁ 사례 1

- 상민이의 인터뷰 중,

“한국말도 **한국에서 온 사람처럼** 잘하지 못하고  
영어도 **여기서 태어난 사람처럼** 잘하지도 못하는  
그런 거... 문학적인 표현 있잖아요. 이런 게 사람들  
정서에서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, 영어는 특히나  
안 되고 한국말은 좀 노력을 해야지 되고...”



## ❁ 사례 1

- 💡 평가의 기준은 ‘모국어 사용자’, 즉 원어민
- 💡 그런데, 원어민은 완벽한 화자이고 문학적 표현도 잘하는가?
- 💡 원어민이 사용하는 말은 모두 올바른 형태인가?
- 💡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원어민인가?



### ❁ 사례 2

- 다은이의 인터뷰 중,

“나한테 그러는 거야, ‘넌 이거 (대학원생의 논문 초록을 영어로 번역) 삼십 분이면 하잖아. 좀 해줘.’ 내가, ‘나 이런 단어 몰라’, 이러면 안 믿는 거야. 말하는 거 들어보면 ‘이렇게 한국말을 잘 하는 애가 왜 못해.’... ‘왜 한국말 하는 애가 이 한국말로 된 논문을 못 읽어?’, 이러는 거야..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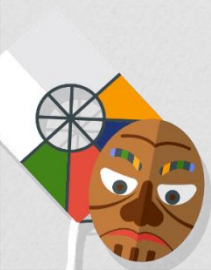


## ❁ 사례 2

💡 한국말 잘하면 한국어 논문을 읽고 쓸 수 있다?

- ‘구어 유창성과 문식력의 혼동’

💡 원어민은 학술적 글쓰기와 격식어 사용에 능하다?



# 04


---

## 단일언어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





### 원어민은 이상적인 화자?

-  원어민은 자신의 언어에 통달한 화자가 아니다.  
원어민도 개인에 따라 언어 사용 능력과 양상이 다르다.



❁ ‘올바른 형태의 언어가 존재하며 이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?’

💡 다양한 방언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?



❁ ‘올바른 형태의 언어가 존재하며 이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?’

예 ▶ 제주도 방언

어드레 감수과? (어느 곳으로 가십니까?)

바당에 괴기 사레 마씀 (바다에 고기 사려고 말입니다.)

무사, 누게 왔수과? (왜, 누가 왔습니까?)

서울서 죽은 아방네 완 마씀?

(서울에서 작은 아버지네가 왔습니다.)

게민, 멩심허영 갔당 옽서

(그럼, 조심해서 갔다 오십시오.)



❁ ‘올바른 형태의 언어가 존재하며 이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?’

💡 별개의 분리된, 그리고 단일한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.



❁ ‘언어는 고정 불변의 것으로서 규범에 따라야 한다?’

예 ▶ 영어

A: Even though I have the shirt, I'm like,  
‘I'm going to blend in today.’ I was like,  
‘ But I won't.’ And we were like, ‘No you won't.’

B: She's sitting there and she's like, ‘Oh my god!’  
She's like, ‘That's your boyfriend?’ And I'm like,  
‘Yeah.’ She's like, ‘ Oh, he was a cool one at  
Lawrence.

Tagliamonte' & D' Arcy 2004, p. 493



## ❁ 언어는 사회적 구성물



Romaine 1994



“각각의 언어가 서로 다른 별개의 언어로 존재한다는 관념은 유럽의 문화적 가공의 결과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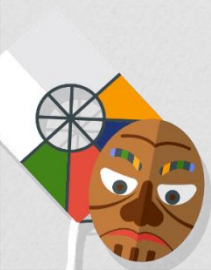


## 언어는 사회적 구성물

“언어에 대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은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만들어졌다.”

Pennycook & Makoni 2007, p. 23

-  언어 학술원 설립: 문법을 만들고 사전 편찬
-  언어의 표준어화: 일원화 & 획일화



05

---

## 대안적 관점





❁ “언어들은 원래 하이브리드(잡종)이고, 문법은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며 의사소통은 유동적이다.”

Canagarajah 2007

## ❁ 기술주의적 관점

💡 사람들이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대로 기술할 뿐 어떤 형태가 맞고 틀린지 규정하지 않는다.

↔ 규범주의적 관점




**06**


---

## 언어 교육의 지향점



### 올바른 언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함





 올바른 형태만을 고집하는 규범주의의 태도는 현실에 맞지 않다.

 이상적인 화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

### 언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



### 의사소통의 전략과 여러 언어적 자원의 개발을 지향

-  언어 교차 (code-switching): 두 언어를 번갈아 혹은 섞어 사용
-  언어적 적응: 대화 상대에 따라 적응
-  다시 고쳐 말하기, 해명, 몸동작, 주제 변경 등의 대인관계 전략들
- 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내심, 관용과 겸손 등의 태도와 관련한 자질 등



Q.

오늘의 주제가 한글학교 교실의 교사에게  
어떤 점을 시사할까요?

💡 학생들의 언어 실수 지적하거나  
바른 언어 형태 사용 지도하는 것을 지양하고  
재외동포 자녀들과의 **한국어 소통 중점에 중점**





## 학습정리

- ◆ 이중언어구사능력을 보는 통념은 '두 언어를 모두 잘한다'와 '두 언어 모두 부족하다'의 획일적 관념이고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원어민의 능력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.
- ◆ 재외동포 자녀들의 이중언어능력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에 대한 통념을 버려야 한다.
- ◆ 의사소통 전략과 언어적 차이에 대한 관용과 인내심, 이해력 개발 등이 언어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.





# 참고문헌

- Baker, C. (2011). *Foundations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* (5th ed.). Clevedon: Multilingual matters.
- Canagarajah, S. (2007). After disinvention: possibilities for communication, community and competence. In S. Makoni & A. Pennycook (Eds.), *Disinventing and reconstituting languages*. Clevedon: Multilingual Matters.
- Cook, V. (1992). Evidence for multicompetence. *Language Learning*, 42(4), 557-591.
- Cook, V. (Ed.) (2002). *Portraits of the L2 users* Clevedon: Multilingual Matters.
- Garcia, O. (2009). *Bilingu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: a global perspective*. Malden, MA: Wiley-Blackwell.
- Grosjean, F. (1985). The bilingual as a competent but specific speaker-hearer *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*, 6(6), 467-477.
- Grosjean, F. (2008). *Studying bilinguals*. Oxford: Oxford University Press.
- Jessner, U. (2008). Multicompetence approaches to language proficiency development in multilingual education. In J. Cummins & N. Hornberger (Eds.), *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* (2 ed., Vol. 5: Bilingual education, pp. 91-103). New York: Springer.
- Makoni, S., & Pennycook, A. (2007). Disinventing and reconstituting languages. In S. Makoni & A. Pennycook (Eds.), *Disinventing and reconstituting languages*. Clevedon: Multilingual Matters.
- Romaine, S. (1994). *Language in society: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*. Oxford: Oxford University Press.
- Tagliamonte, S., & D'arcy, A. (2004). He's like, she's like: The quotative system in Canadian youth. *Journal of Sociolinguistics*, 8(4), 493-514.

